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적용학습 고전산문 01강	주몽 신화(12)	작자 미상	1
적용학습 고전산문 02강	용소와 며느리바위(4)	작자 미상	7
적용학습 고전산문 03강	국선생전(15)	이규보	9
적용학습 고전산문 04강	이생규장전(15)	김시습	16
적용학습 고전산문 05강	서재야회록(0)	신광한	-
적용학습 고전산문 06강	설생전(4)	오도일	23
적용학습 고전산문 07강	송반궁도우구복(0)	작자 미상	-
적용학습 고전산문 08강	소현성록(3)	작자 미상	25
적용학습 고전산문 09강	황새 결승(20)	작자 미상	27
적용학습 고전산문 10강	적벽가(20)	작자 미상	37
적용학습 고전산문 11강	계우사(0)	작자 미상	-
적용학습 고전산문 12강	제석본풀이(0)	작자 미상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년 수능특강 / 해설 1~2쪽)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이 주몽이었다.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어느 날 그가 물던 말이 곧연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의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임금은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러 보게 하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며 거두어 길러 이름을 금와라고 하고, 아이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훗날 재상인 아란불이 말하였다.

[A]

어느 날 하느님이 내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동쪽 바닷가에 가섭원이라는 땅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곡이 잘 자라니 도움을 정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이 마침내 임금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움을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그 옛 도움지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움을 정하였다.

해부루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에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의 내력에 대해 물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남자를 좇았다고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금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를 방 안에 가두었다. 그녀에게 햇빛이 비추었고, 그녀가 몸을 당겨 피하면 햇빛이 또 따라와서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을 하여 다섯 되쯤 되는 크기의 알 하나를 낳았다. 임금은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또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고 밟지 않았다. 나중에는 들에 버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 주었다.

임금은 그것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 없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그것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껌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고 기이하였고, 나이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였다. 손수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를 아이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금와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

하였다. 맏아들 대소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고 그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없애 버리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빠르게 달리는 말을 알아내어 먹이를 적게 주어 마르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임금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할 때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은 짐승을 훨씬 더 많이 잡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가 또 주몽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주몽의 어머니가 그들의 계략을 몰래 알아내어 주몽에게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지체하여 머물다가 옥을 당하느니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이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과 벗이 되어 달아났다. 엄시수*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어 따라오는 병사들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였다. 주몽이 강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지금 도망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해야 하는가?”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은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져 버려서 뒤쫓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중략>

졸본천에 이르러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움으로 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비루수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고(高)를 성씨로 삼았다.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 엄시수 :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위치한 강.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개사수’라고 나옴.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자연적 일화를 소개하여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천상의 존재가 지상적 차원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제시하여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선인을 악인으로 전환하여 갈등의 양상을 입체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발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2. 윗글의 ‘주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몽’의 활 쏘는 실력은 그를 주몽이라 이름 짓는 이유가 된다.
- ② ‘주몽’의 영특한 면모는 말의 상태를 알아보고 기르는 모습에서 확인된다.
- ③ ‘주몽’의 신이한 탄생은 ‘주몽’을 시기하는 이들에게 ‘주몽’을 없애려는 이유로 언급된다.
- ④ ‘주몽’의 도읍 결정 과정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 세 벗의 의견을 존중했음을 보여준다.
- ⑤ ‘주몽’이 ‘엄시수’를 건너는 장면은 ‘주몽’이 스스로를 고귀한 혈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 윗글의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다음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주몽 신화 관련 기록의 일부이다. 『삼국사기』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느 날 천제가 흘승골성에 다섯 마리 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다.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는 스스로를 해모수라 칭하며 왕이 되었다. 아들을 낳아 해부루라 하였다. 하루는 해부루의 재상 아란불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할 것이니,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가라. 동해 바닷가에 가섭원이란 곳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도읍을 세우기에 적당하다.”

아란불이 임금에게 권하여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고 하였다.

해부루는 늙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 어느 날 타고 가던 말이 곤연에 이르렀는데, 큰 돌을 마주 대하고 눈물을 흘렸다. 임금은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러 보게 하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며 거두어 길러 이름을 금와라고 하고, 아이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 ① [A]에서만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 달리 ‘부여’가 신성한 국가임을 부각하고 있군.
- ② [A]와 <보기> 모두 ‘아란불’의 꿈으로 인해 도읍을 옮기게 되는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아란불’의 꿈을 하늘의 계시라 여기고 있군.
- ③ <보기>에서만 ‘해모수’와 ‘해부루’가 부자 관계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해모수’와 ‘해부루’의 혈통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④ <보기>에서만 ‘해모수’가 세운 나라의 이름을 ‘북부여’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해모수’와 ‘부여’의 연관성을 중시하고 있군.
- ⑤ [A]와 <보기> 모두 말이 눈물을 흘린 큰 돌 아래에서 ‘금와’를 발견한다고 설정한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왕권 계승자의 신성성을 인정하고 있군.

정답 및 해설

• 적용학습 고전산문 •

정답

1	④	2	④	3	①	4	②	5	④
6	④	7	③	8	해설	9	②	10	④
11	①	12	해설	13	⑤	14	①	15	해설
16	해설	17	⑤	18	③	19	③	20	⑤
21	④	22	⑤	23	③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②	30	③
31	해설	32	⑤	33	②	34	④	35	④
36	①	37	③	38	①	39	③	40	①
41	②	42	해설	43	③	44	⑤	45	③
46	해설	47	⑤	48	⑤	49	⑤	50	①
51	④	52	③	53	④	54	④	55	②
56	③	57	①	58	④	59	②	60	⑤
61	①	62	④	63	③	64	②	65	④
66	①	67	①	68	④	69	③	70	③
71	①	72	⑤	73	④	74	④	75	③
76	③	77	④	78	①	79	②	80	⑤
81	③	82	①	83	④	84	②	85	⑤
86	①	87	④	88	④	89	④	90	④
91	④	92	①	93	①	94		95	

해설

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금와’의 일곱 아들과 ‘주몽’의 갈등이 드러나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인이 악인으로 전환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 안에 감금당한 ‘유화’에게 햇빛이 비춘 것, ‘유화’가 사람이면서도 알을 낳은 것,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온 것,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는 것 등의 초자연적 일화는 건국 시조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부여’의 재상 ‘아란불’의 꿈에 천상의 존재인 ‘하느님’이 나타나 도읍지를 옮길 것을 명령하고 있다.
- ③ ‘동명성왕’, ‘고주몽’, ‘해부루’, ‘금와’, ‘아란불’, ‘해모수’, ‘하백’, ‘유화’, ‘대소’ 등의 인명과 ‘곤연’, ‘가섭원’, ‘태백산’, ‘우발수’, ‘웅신산’, ‘압록강’, ‘엄시수’, ‘졸본천’, ‘비류수’ 등의 지명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해부루’, ‘아란불’, ‘유화’, ‘대소’, ‘주몽’ 등의 구체적 발화가 드러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현장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2.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주몽’은 ‘졸본천’을 도읍으로 정하려고 한다. 이때 ‘주몽’은 이지역의 ‘토양’과 ‘산하’를 고려한다. ‘오이’, ‘마리’, ‘협보’ 세 벗의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쓰는 사람을 일컫는 부여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주몽’은 훌륭한 말을 알아보고는 먹이를 적게 주어 마르게 하고, 둔한 말을 알아보고는 먹이를 잘 주어 살찌게 한다. 그러자 ‘금와’는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준다. 이를 통해 훌륭한 말을 알아보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주몽’의 영특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대소’는 ‘임금’에게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고’라고 말하며 ‘주몽’을 처치할 것을 요청한다. ‘주몽’을 없애려는 이유로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주몽’은 ‘엄시수’에서 길이 막히자 자신이 ‘천제’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임을 외친다. 이를 통해 ‘주몽’이 스스로를 고귀한 혈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A]에서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로 설정되었고, (보기)에서 ‘해모수’는 ‘천제’로 설정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모두 ‘해모수’가 세운 나라가 신성한 국가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만 신성한 국가임을 부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삼국사기』에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가 ‘부여’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서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로 설정된 것을 통해 ‘부여’라는 국가의 신성성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와 (보기)는 모두 ‘(북)부여’가 ‘아란불’의 꿈으로 인해

도움을 옮기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문헌 모두 ‘아란불’의 꿈속 메시지를 하늘의 계시로 여겨 중시하는 것이다.

- ③ (보기)는 [A]와 달리, ‘해모수’와 ‘해부루’를 부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가 ‘해모수’와 ‘해부루’의 혈통적 연관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A]는 (보기)와 달리 ‘해모수’를 ‘부여’ 건국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삼국사기』는 ‘해모수’와 ‘부여’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 모두 말이 눈물을 흘린 큰 돌 아래에서 ‘금와’를 발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문헌 모두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금와’를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